



만주별판에서 독립의 꿈은 커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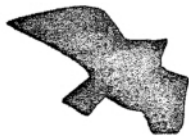
안병무

1922년 평남 안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시절 만주로 건너가 거기서 십대를 보냈다.
1955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서독 하이델베르크 신학부를 졸업한 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신학대학 재직 중 두 번이나 강제 해직
당한 바 있다.

1987년 8월 한국신학대학 교수를 정년 퇴임한 후
현재는 1973년 설립했던 한국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역사와 증언』 『해방자 예수』 『성서적 실존』 『시대와 증언』
『진실 때문에』 『역사의 예수』 『역사 앞에 민중』
『민중신학 이야기』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등이 있다.



내가 태어난 해는 1922년이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키운 지 12년 후이고 3·1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이다.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의사 지망생인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더불어 내 나이 2살 때 만주로 이민을 갔다.

물론 그때 기억은 내게 없다.

내 기억은 만주 간도 화룡현 대립자(大粒子: 팔라즈)라는 조그마한 읍 같은 데서 한 오리쯤 더 들어간 오지(奧地), 들미동이라는 곳에 정착한 이후부터다. 지금 생각해도 그 곳은 오지 중의 오지였다. 아랫 울 동리에 약 100여호의 한국 사람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동리에 사립 소학교(6년제)가 아담하게 지어져 있어 그 주변의 한국인 아이들이 몰려들어 공부하고 있었다. 것처럼 오지에 그같이 아담하게 지어진 학교를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히 고국을 떠나 간도 땅으로 피난간 이민 중에, 그것도 일본세력이 미치는 데서는 자신을 노출할 수 없는 숨은 애국지사들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이사장격이었으니까 아마도 그 역시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그곳에 정착한 것은 아닌 듯했다.

황량한 만주 벌판.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옥토에 드문드문 만주 호족들의 큰 집들이 앉아 있을 뿐 이른바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간도만은 한국 사람들이 200여만명이나 밀집해 살고 있었다.

우리 민족이 이 만주 땅에 발을 디딘 역사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소년시절에 만주가 본래 우리 땅이었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들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애매한,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과 같은 그곳으로 이민하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은

것은 만주의 어떤 세력이기 전에 극도로 쇠잔해버린 우리 정부였다. 저들은, 이 정부는 청나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땅 한 뼘도 가지지 못해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너온 백성들을 무력으로 가로막곤 했다. 그래서 대체로 밤중에 강을 건너가는 무리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두만강 자체에 조그만 섬이 생겨났다 한다. 땅에 굶주린 농부 일부가 바로 그 땅을 개간하여 채소를 심어 먹었는데 도강하다가 병졸들에게 들키면 바로 그 섬(間島)에 간다는 뜻에서 연변을 간도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참략해 들어온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자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1913년에 40%의 농민들을 땅을 잃은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는데 전쟁말에는 소작인이 70%로 늘어났으니 힘 없고 땅 뺏기 하나 없는 저들이 어딜 가랴. 만주 땅만큼 적절한 곳도 없을 게다.

그래서 남부여대, 조그마한 집에 바가지와 쥔신을 주렁주렁 달고 허허벌판 만주로 도둑놈처럼 밤을 타서 넘어갔다. 나도 부모의 등에 업혀 그 난민 틈에 끼어 만주 연변에 간 것이다. 그러니 만큼 그들의 삶은 찢들고 찢든 가난 그 자체였다.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튼튼한 체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흙으로라도 그 겨울 추위를 막을 만큼 집을 튼튼히 하고, 농사꾼들이니까 방바닥에 까는 것도 무엇으로나 곱게 엮어 장만했음직한데 그렇게 된 집은 몇 집 보이지 않았다. 그 사는 모습은 잠깐 머물다 언제고 떠날 사람들의 모습이 지 영주할 사람들의 꼴은 아니었다.

만주의 추위는 대단한 것이어서 겨울에 오줌을 누면 나오는 즉시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 반면 여름은 더워서 얼마든지 논농사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살던 그 근방 어디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논으로 개간한 데가 없었다. 농사라야 감자, 옥수수, 수수(玆糧), 그리고 조 등이 중심이었다. 그러니 농민들의 일용할 양식은 조밥과 감자였다.

그 동네에는 학교 주변을 빼고는 나무 한그루 심어져 있지 않았다. 겨울 땃감으로 나무는 고사하고 주인 없는 산에 널려 있던 나무 뿌리들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학교 교실에서도 바로 그 나무 뿌리로 난방을 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지역도 한때는 울창한 삼림지대였으나 오랜 동안 주인 없는 땅이 되어 과객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주인 없이 잊혀진 그 땅!

그런데 단 한 곳 예외는 있었다. 그 곳에만은 제법 노송들이 10여 그루 서 있었고 그 언덕 아래에는 쪼그마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동리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지내는 부락제 제단이었다. 평소에는 특별한 경계선도 없고 무슨 경고하는 팻말도 없었으나 아이들을 위시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있는 돌 하나 침범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문물이 아니라 불문물이었다.

우리집은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아주었기에 동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장만해준 땃나무가 늘 산 같이 높이 상비되어 있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흠뻑 그대로 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제법 벽지를 아담하게 바르고 정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인 내 마음에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을 지닐 수 있을 정도였다.

2

나이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였으니까 8살 되기 이전 일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밤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바깥의 어떤 사람들과 수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면서도 무슨 비밀이 있

다고 느낀 탓으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었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렇게 늦지 않은 밤에 두 사람이 어머니의 안대를 받으며 우리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어머니와 그들은 벌써 친숙한 사이같이 느껴졌다. 놀랜 것은 저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의복은 한없이 남루하게 덕지덕지 기웠고 바지의 무릎 주위에 풀빛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것은 풀밭을 많이 기어다닌 흔적으로 짐작되었다. 어머니는 바쁘게 음식을 장만해오셨다. 그러는 동안 그 중 한 사람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응시하고 있는 나를 손짓해 불렀다. 그는 나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넌 참 잘 생겼다. 너두 커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는 모르면서도 약간 섬찟한 느낌과 함께 그 사람과 엄숙한 서약이라도 한 듯한 마음이 들면서 무슨 대단한 보물을 그에게서 전해받았다는 생각을 그 뒤로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저들이 독립군이라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어머니가 밤중에 자주 밖에서 사람들과 밀담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두터운 옷가지 등을 장만해두었다가 그들이 오면 전해주었고 오래 되어도 상하지 않을 딱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글 모르는 무식한 여인.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남몰래 계속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비하기만 하다. 자식에게도 그 심정을 얘기하는 일이 없었다.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만의 결단 같았다. 아마 그런 일이 발각나도 그 책임을 혼자서 떠맡고 남편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여인의 가득한 마음에서 그랬으리라.

어느날 새벽녘에 아버지와 함께 자다가 눈을 떴다. 아버지는 췌그마한 창구멍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나도 끼어들여다 보았다. 한 20여명이나 될까, 꼭 패잔병 같은 인상을 주는 한 무리가 하얗게 덮힌 눈길을 밟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뭐라고

도란거리고 있었으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계중에서 몇몇 여인들이 눈에 띄었는데 내 눈에 오래도록 기억된 것은 임신한 여인의 모습이였다. 몹시 배가 불렀었다고 기억된다. 그 여인을 두 장년이 부축하면서 데려가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의 손에는 총과 작대기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말씀이 저들이 바로 독립군이라는 것이다. 정말 아무런 기약 없이, 승리의 약속이나 보장도 없이 끝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다. 당연히 그 순간 저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했으리라. 아버지는 저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우리집으로 올런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는 그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단지 저들이 무척 외롭고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애처로운 생각외에는 —.

3

조선을 통채로 삼킨 일본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그 거대한 중국을 삼켜버리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중국은 이미 이도 발톱도 다 빠진 늙은 짐승처럼 보였다. 일본의 작전은 일차적으로 만주를 독립시켜 분열을 꾀하는 한편 그것을 기지화하여 중국 전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만주를 점령할 구실을 찾아 1931년 9월 철도보호를 명목으로 만주에 주둔시켜왔던 관동군을 시켜 만주 봉천이라는 지역의 철도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군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떼를 썼다. 세계에서 조사단까지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판국이었으나 제국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그게 무슨 소용이랴! 결국 일본군은 그 일을 빙자해서 삼시간에 이미 배치된 병력으로 남만주를 점수하고 뒤이어 만주 전체를 점수하여 청나라 왕족의 나부랭이였던 ‘부의’라는 자를 왕으로 옹립하여 이른바 만주국이라는 것을 창설했다. 그것

이 그 다음 해인 1932년이다. 그때 만주에는 만주족이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다. 인구가 3천만 정도였는데 한국인은 300만이라고 했다.

일본이 자기 민족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우리민족의 문화의 중심지인 용정에 거대한 총영사관을 세운 것은 아마 그 이전의 일로 안다.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가장 경계한 것은 우리민족이었다. 3·1운동이 좌절되자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몰래 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사람에 대한 경계는 유달랐다. 사실상 한국 사람들은 그곳을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농민전쟁 의병의 후예들, 그리고 3·1운동에서 고배를 마시고 싹터를 옮긴 이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항일투쟁을 해왔던 모양이다. 반드시 두드러진 우두머리가 있어 투쟁했으랴! 이름없는 민중들이 나라 찾겠다는 정열만 안고 빛도 없이 남도 모르게 산화됐기에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이들이 술하게 많을 터이지.

이러한 항일세력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는 독립군이 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이라 불렀다. 그런데 공산당이라고 해도 저들이 정말 맑시즘에 철거했느냐는 의심스럽다. 그들을 오히려 ‘혁명적 민족주의자’로 부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저들은 항일전투를 위해 쉽게 몽칠 수 있었다. 그 둘이 하나의 부대를 형성해 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물든 서로 비방하는 일은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주로 밤에 나타나는 독립군과 공산당이 주민들에게는 쉽게 구별되었다.

이들은 연변 곳곳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청장년들이 어깨에 몽둥이를 메고 행진하는데 맨 앞에는 나팔수와 북치는 사람이 앞섰다. 그 중에는 허리에 붉은 실로 뜬 허리띠를 맨 사람들이 꽤 섞여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공산계열이라는 표시였다. 그리고 의식화 교육도 진행됐는데 그 주체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다. 밤이면 주민들을 어떤 집에 모아놓고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연설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주었다.

연설내용은 기억되지 않으나 자본주의, 제국주의, 개인주의,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 같은 소리가 앞뒤 연결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병 밑바닥의 물을 먹기 위해 병 속에 자갈을 물어 넣었다는 지금도 국민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영리한 까치’ 이야기, 여우의 교활함보다 한술 더 뜯 학의 지혜로움에 관한 얘기 등이 기억나는 걸로 보아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민족교육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 당시 배운 노래 중에서 생각나는 것으로는

독수리 같은 일본군대 발톱 밑에 든 우리
 철골(?) 아래 노력 동포 시름과 기근일세.
 인정 모르는 부르조아는 나날이
 온갖 학대와 가렴주구를 행하네.
 그만 두어라, 푼푼치 못한 우리들의 재산을
 식산은행 주식회사 모조리 삼켜갔네.
 있으려하니 죽기 싫고 가라하니 아득해.
 남부여대로 힘없이 북쪽나라로 떠났네.
 척 들어서니 시베리아 요새,
 돌아보니 산천초목이 인정의 품속(?)에 사나워 있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기에 가사가 정확히 뜻이 통하지 않고 기억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건 공산계열의 노래였던 것 같다. 나는 이 노래를 환한 대낮에 목청껏 불러대다가 아버지에게 되게 주의를 당한 기억이 난다.

이러한 의식화교육은 물론 밤에만 이루어졌으며 철저한 비밀에 부쳐졌다. 낮에는 일본세력이 지배했다. 일본식 교육이 학교에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밤에도 일본군이나 그 앞잡이의 급습이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항상 청년들이 일정하게 길 어구에서 보초를 서다가 급히 전갈을 보내면 갑자기 소동하고 받아 적었거나 나누어 준 유인물을 허겁지겁 아궁이 속에 집어넣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주 2-3회씩은 각 가정을 긴장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알 수 없는 손들이 유인물을 묘하게 각지게 접어 종이 창문에 쿵 떨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침에는 높은 나무나 학교 등 눈에 띄는 곳에 태극기를 걸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이미 야학에서 태극기 그리는 법을 익혔고 애국가도 배웠다.

그때 우리 동네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두장군이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장군에 관한 전설이었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사용할 줄 알아서 형사들에게 포위가 되더라도 축지법을 사용하거나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뛰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로서 소년들에게는 신비 그 자체의 인물이었다. 그때가 분명히 소학교 입학 전이었으니까 해방 이후에 김일성장군이 이북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백발이 정성한 노인일 걸로 상상했다. 사람들이 오늘의 김일성을 그 당시의 그와 어떻게 일치시키든간에 나이로 보면 나와 꼭 10살 차이이고 보니, 가령 그때 내가 6~7살이었으니 16~17세 되는 소년이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여간 그에 대한 전설이 많은 소년들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었고, 그는 우리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4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된다. 내가 소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내 의식은 강그리 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달라져가고 있었다. 학교생활에 어울리면서부터 난 그 전설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이전 야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모조리 내 의식 저 밑바닥으로 침전되어 버렸다. 그 대신 일본 천황을 위시해서 일본의 노기대장, 도구대장 등등 일본 교과서에 담긴 인물들에 대한 흠모로 바뀌어졌다.

그 즈음 일본 제국이 본격적인 소탕전을 개시했는데 그만큼 우리 항일부대의 투쟁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은 민족분열을 꾀해서 우리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들을 강제 징집하여 의용대(군)라는 이름으로 무장시켜 약간의 월급도 지불했다. 그들의 임무는 바로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일이었다. 소학교 가기 전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바로 그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징집된 자들이다.

그런데 어느날 이 ‘의용대’가 동리학교 마당에서 쉬고 있었다. 그 유니폼과 든 총 등이 멋있었고 장하게만 보였다. 이것이 일년 쯤 소학교에서 받은 세뇌의 결과다. 그들은 시체 한 구를 들것에 메고 오다 쉬고 있는 중이었다. 게릴라와 격투 끝에 의용군 하나(그 역시 우리나라 사람)가 죽은 것이다. 그 시체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으나 소년의 마음에는 애처롭게 느껴졌고 그를 죽였을 독립군이 미워졌다. 그리고 왜 이때 일본의 노기대장, 도구대장 같은 이가 없는가 하고 애석해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글썽이나 배웠다는 선생이나 교장이라는 작자가 직업상 일본말과 일본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해도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비밀리에 깨우쳐주는 일이 도대체 없었다. 공식기록들을 보면 그때도 한참 항일투쟁이 진행중이었고 내가 살던 팔라즈지역에도 항일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우리동리에는 독립군의 발자취가 갑자기 끊겼다. 내가 소학교 들어간 후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마저 단 한번도 독립군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붉은 띠를 두르고 있던 청년들 몇은 잡혀가고 몇은 어디론가 가버려 조용해졌다. 따라서 녹두장군이나 김일성장군 얘기도 희미해져 갔다. 그대신 특히 공산군에 대한 악선전이 계속 반복되었다.

5

내가 4학년을 마치던 겨울 한 사건이 터졌다. 학교 아이들이 교장 축출을 계획한 것이다. 방학이 되자 어떤 애 집에서 주동이 된 아이들 셋이 모여 모의를 했다. 그때 나는 겨우 11세였을텐데 어떻게 그 모의에 참여하게 됐는지 모른다. 나는 여덟살에 학교를 들어가 어린 데 비해 다른 두 아이는 이미 결혼한 애 아버지들로 17-8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만큼 내 태도는 수동적이었다. 아마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을 고려해 끼어넣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우리는 20여 가지나 된 교장의 죄목을 열거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문장을 만들어 요로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우리 셋이 앞장서서 지시하는 대로 학생 전원(전원이라야 100여명)이 움직이고 만일 우리 셋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일제히 일어나서 폭력(몽둥이)으로 학교 유리 등을 부수고 점거하기로 되어 있었다.

개학, 그 날이 왔다. 내 가슴은 떨렸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이 나를 부른다고 하지 않는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교장실로 들어서니 그는 다짜고짜로 매질을 해댔다. 정보가 샌 것이다. 그는 “이 자식아,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네가 그래 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내 쫓는다고? 엉!” 나는 무슨 말로 그에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그러나 그는 갑자기 회유의 미소를 머금고 손까지 잡으면서 내게 그 대표자리를 거절하라고 했다. 그때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안됩니다.”고 겨우 거절의 표시를 했다. “이 자식이! 무엇 때문이냐?”고 다시 다그치며 몽둥이를 드는 그에게 “선생님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고 한마디 한 덕택에 무수히 매만 더 맞고 나왔다. 내 얼굴에는 코피가 난 자했다. 이쯤되면 학생들이 행동으로 옮겨야하는 건데…… 하여간

첫날은 실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 사실을 듣고도 이상스레 나를 책망하거나 내 결심을 가로막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다시 수뇌모임을 했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동적으로 변했다. 얻어맞은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다니! 피가 낭자한 채 교장실에서 나온 내가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이 내 발언권을 강화했다. 우리는 교장의 수업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장이 들어오면 그 수업에 참여하기는 하면서 책을 펴지 않는다는 게 그 작전의 하나다.

드디어 교장이 수업에 들어왔다. 교장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자 대부분의 학생이 책을 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동자답게 약속대로 책을 펴지 않았다. 교장은 나더러 나가라고 소릴 질렀다. 그러나 나는 끝내 버티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는 교장이 분필을 내 쪽으로 던지더니 자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와중에서 수업은 완전히 중단됐다. 결국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저들은 거듭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를 회유하려 들었다. 결국 이사회가 교장과 우리 셋을 합석시키는 회합을 마련했다. 이때 나이든 한 학생이 20여 가지나 되는 교장의 죄과를 적은 고발문을 읽었다. 물론 교장 얼굴은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졌다. 누구도 그 죄상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일보도 진전되지 않았다. 다음에 만날 기일을 정하고 해산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겼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 다시 모인 이사회에 나갔더니 이사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다. 딸라즈에 있는 일본 경찰서장이 너희들을 조사할 일이 있으니 곧 출두하라고 한다. 그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이것은 청천벽력이었다. 그때는 몰랐으나 바로 그 교장녀석의 작전이었으리라.

그는 그 뒤 우리들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꼼짝 못하고 승부도 가리지 못한 채 그 학교를 떠나야 했다. 나는 열한살의 나이에 홀로 유학의 길을 나서야 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모두 가정을 가진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없었을거고! 아마 그후
암전한 농사꾼으로 주저앉았기가 쉬웠을거다.

6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나는 그곳에서 80리 떨어진 투두기우
(頭道溝)라는 데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이때부터 내 소년기는 급전환을 맞게 된다. 그 곳을 선택한 이
유는 거기 먼 친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공립학교와 또
하나 조선민회에서 세운 '민성학교'가 있었는데 나는 끝내 민성학
교를 고집했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내가 배척한
그 친일파 교장처럼 이 공립학교 교장이 일본인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동리에 가서 내 삶에 전환을 가져온 조그마한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동리에는 처음 보는 서양식 건물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맨 꼭
대기에 언젠가 명동(明東) 근처에서 보았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
다. 내 속에 잠재해 있었을 뿐 잊어버렸던 그때의 생각이 되살아
났다. 소학교 2학년쯤이던가, 내가 명동 근처 조그만 시골길을 건
다가 언덕을 바라보니 어떤 집에 십자가모양이 세워져 있었다. 그
모양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동리 아이들한테 물
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 죽어서 저런 표시를
해두었다는 것이다. '이 동네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어떤 사
람이 또 있었구나. 남을 위해 죽은 사람이!'

나는 그 중 한 건물로 찾아가서 그 주변을 여러 날 맴돌았다. 마
침내 그 뜰에서 공을 차고 있던 소년들을 발견하고선 그들과 인사
도 나누지 않은 채 공을 몇차례 받아 차다가 어떤 소년에게 이 집
이 무얼하는 집인지 물었다. 무슨 얘기가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중

에서도 이 단체에 참여하면 술을 먹어서는 안되고 첩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단체의 일원이 되기로 쉽게 결단을 내렸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내 소년기를 괴롭혀왔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 탓으로 그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술 때문에 마냥 취해 있어야 했다. 직업상 얻은 버릇인지 체질이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 점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아버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그 술이 내게는 원수였다. 또 하나는 두 번씩이나 한 지붕 아래 두 어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거기서 얻은 쓰디쓴 경험이 내게는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별 말이 없었으나 나는 어머니의 고뇌를 읽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첩이라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이런 생각에 꽂차서 나는 이 단체를 반음주, 반축첩 운동단체로 여기고 가담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에 발을 디디게 된 발단이었다.

내게는 학교생활보다 교회생활이 더 소중했다. 군국주의적인 학교 분위기보다 교회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뚜렷하게 달랐기에 마음을 끌었다.

나는 세례도 받지 않았으나 불과 6개월만에 소년소녀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목사의 설교는 단 한마디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들려온다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여호와’니 ‘구주’니 하는 말들이 내게는 그렇게 낯설었다. 여호와에서 여우를 연상했고 구주란 말도 목사가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바람에 구두로 들렸다. 왜 하필이면 여우며 구두일까?

기도할 때는 절대로 나는 눈을 뜨면 안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어느날 몇분 늦게 예배시간에 들어갔더니 뒤에 앉았던 그 교회 장로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그때부터 그가 가짜 장로라고 단정할 만큼 적어도 그 규율을 나만은 그대로 지킬려고 했다. 새벽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때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 앉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어떤 때는 예수를 꼭 만나고 싶어 새벽

일찍 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날 새벽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기도를 들어 문을 안 열고 창문으로 쑥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후부터는 다시는 그를 보여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

교회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내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정신이 빠진 것을 참다 못한 아버지는 어느날 교회에서 돌아오는 내 손에 들린 성서와 찬송가책을 뺏더니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면서 더 이상 교회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맞섰다. 아버지는 “도대체 공자님 같은 훌륭한 어른들도 많은데 넌 하필이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서양종교를 끌어들여 집안망신을 시키는 거냐?”며 화를 내셨다. 이에 나는 “난 공자 맹자 다 싫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히고 집안 일은 모르는 듯 맨날 술에 취해 있어도 좋은 것이 유교라면 난 그런 거 싫어요.” 하고 대들었다. 이에 아버지는 당황했다. 어안이 병병하신 채로 한참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혹 예수를 배운다면 또 몰라. 예수를 믿다니 가당치도 않은 수작이야.”라는 한마디를 남기셨다. 난 그때 그 말쑈에 반항만 했으나 후에 두고 두고 생각하게 한 하나의 ‘경고’가 되었다.

7

부흥회 같은 모임이 1년에 한두번씩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 소년에게는 축제의 기간이었다.

어느날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가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제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이니 까라고 묻는 귀절을 들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것

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천만 뜻밖의 얘기였다. 오랫동안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어릴 적 일들과 그때 느낀 것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그 사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발견했을 때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또한 이미 일본세력이 무섭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사가 평장히 용감하고 홀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잊고 있었던 태극기를 다시 그려보고 애국가를 외워봤다.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이 단체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구나 생각했다. 표면으로는 여우니 구두니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지만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는 말하자면 비밀단체인가보다고 생각했다.

비록 교회에서 들은 얘기들이 다 먹혀들지는 않았지만 내게 서서히 싹트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소년기로부터 나는 따돌림 받는 아이는 아니었으나 인간대우를 하는 분위기는 경험 못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자존심을 길러준 것만은 확실하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연극준비를 했는데 내가 주연을 맡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웠다. 제목은 소년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인데 이를 시도한 한 청년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 민족의 태양이여'였다. 내용은 자기 민족을 제국주의 에집트에서 구출해내는 모세의 얘기였다. 그런데 그 연극은 어린 마음에도 바로 우리의 처지를 묘사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모세 같은 해방자를 갈구하는 마음이 잘 묘사되었다. '아, 바로 이것이 이 단체의 숨은 또 다른 면이로구나!' 나는 마치 모세가 된 듯이 절규했고 그 연극은 내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과 무관할 수 없는 사람임을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연극은 두 개를 상영했는데 또 하나는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구약의 에스더 얘기를

극화한 것이다. 모두 민족주의를 반영한 것으로서 크리스마스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마다 구경하러 모이는 우리 민족들에게 암암리에 나라의 독립을 호소했다. 나는 이때 교회란 대단한 단체로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서서히 나는 단순한 소년에서 굉장한 자존심을 가진 소년으로 변해갔다. 거리를 걷다가도 나만 특별하게 보이리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나는 이런 자긍심으로 가득차 가련한 어머니를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어머니가 받는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젠 분명 인간대우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의 존엄성을 깡그리 짓밟는다. 어느날 나는 결심했다. 우리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켜주리라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 돌아와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우리끼리 살자. 아버지와 저 여자는 내 보내야 해. 나는 더 이상 상급학교 안 갈꺼야. 그리고 엄마와 같이 살꺼야. 이 이상 더 이렇게 치사한 생활을 할 순 없잖아?” 하고 울먹였다. 한 지붕 밑에 두 여인을 데리고 사는 이런 생활은 청산 하자는 얘기였다. 아버지와 생이별하자는 제의인 셈이다.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내 뜻에 동의했다. 그러자 난 다짜고짜로 아버지와 그 여인에게 내 뜻을 전했다. 살고 있던 집은 엄마와 내가 갖고 아버지의 의료용구나 자료들은 물론 아버지가 갖고 모든 재산을 글자 그대로 반으로 가르기로 했다. 수저 네 개면 두 개씩, 이불이 네 채면 두 채씩 이런 식으로. 이런 나의 선언에 아버지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거부의 표시도 긍정의 표시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만취해 들어와 어른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세간살이를 모두 둘로 가르는 일을 하고 나는 한 약재들을 싸기 시작했다.

이래서 불과 열흘 안에 아버지와 그 여인은 우리가 사는 데서 한 20여리 떨어진 이도구(二道溝)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서른이 채 되지 않은 생과부가 된 셈이다. 큰 짐을 진 셈이지만 아

들을 대견해 하셨다.

난 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단 학력은 우량인데 행동점수가 좋지 않아 상품은 못받고 상장만 받았다. 그것은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 2년 동안 싸움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싸움은 대체로 나보다 나이가 위인 애들과 많이 했다. 그들이 힘깨나 쓴다고 나이어린 애들을 괴롭혔는데 내가 당하건 다른 애들이 당하건 그때마다 나는 얻어터지면서도 큰 애들에게 항변하다 싸움꾼으로 알려진 것이다.

한번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젖은 흙덩이를 나르고 있었다. 봉사 활동 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내 뒤의 큰 아이와 싸움이 붙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녀석의 주먹을 연방 맞받아치면서 내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 앞에 바로 담임선생님이 내게 맞고 있었는데 양복 전체가 흙투성이였다. 이러한 내 성격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회에서 얻은 인간존엄의 인식에서부터 자라난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과 더불어 아버지 없는 새 삶을 시작한 나는 졸업과 함께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친 채 어떤 상점에 취직을 했다. 처음 취직한 상점에서는 보름만에 쫓겨났다. 그 이유는 어떤 시골사람과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 집보다 싼 집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 같은 놈을 점원으로 두었다가는 곧 망하겠다. 당장 나가거라!”는 주인의 호통을 듣고 나는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도 “사실이니까요.”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그 뒤에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경영하는 상점에 고용됐는데 비교적 인간적으로 대해주고해서 나도 열심히 일했다. 단 한 가지 불만을 제외하고는 별 불편없이 일년을 무사히 보냈다. 그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 큰 명절에 옆으로 문을 살짝 열어놓고 물건을 팔았다.

그럭저럭 일년이 다 되었을 때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의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일생동안 잊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병무야, 오늘로서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중학교 갈 시험 준비에 몰두해라. 나는 네가 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쌀을 사서 남에게 맡겨 두었다.”고 말씀하셨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장면이 얼마나 비장한가를 상상도 못하리라. “엄마, 난 계속 일할래.”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어린 것을 타이르다 마침내 화를 내며 자기 뜻을 관철하신 어머니! 결국 나는 어머니 뜻을 따라 중학교에 진학기로 결심하고 수험준비를 했다.

8

그곳에서 40리 떨어진 곳이 바로 용정이다. 용정은 연변 한국인들의 문화의 중심지로 세 개의 남자 사립중학교와 한 개의 여자 사립중학교가 있었고 남녀공립중학교는 두 개 있었다. 사립중학교는 일본교육법상 대학진출이 어려웠으나 거기서 배출하는 인물들 중에는 민족지도자들이 많았다. 출세할 야심이 있으면 물론 공립학교로 가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한사코 사립학교 중의 하나인 기독교계 중학교를 선택했다. 그것은 미래의 출세보다 기독교가 더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구 3천이나 되었을까? 거기에 여섯 개의 중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용정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중학교라 하지만 학생들의 의식수준은 지금의 대학생을 뺄 정도였다. 지도자가 된다는 자부심에서 말이다.

중학교 교복을 갖추어 입고 모자를 쓴 나는 마치 선택된 사람인 양 자부심에 가득차 있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이 고생스러웠지만 그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란강 건너 어떤 시골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했다. 어느날은 폭우가 쏟아져 인도교가 떠내려갔다. 장보러 강을 건너온 시골사람들이 유일하게 건재한 철교로 몰려왔을

때 총을 쏠 만주경찰이 꼭 차단해서 백여명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 끼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복 입은 이가 오자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모인 이들에게 “자, 우리도 모두 건너갑시다.”고 지휘했다. 지키고 있던 순경 하나가 총대로 막으며 눈을 부릅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시비하면서 그틈에 빨리 건너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다. 나는 그에게 역장에게 가서 답판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일본 헌병대에 넘겨버렸다. 거기서 나는 “이 건방진 놈!”이라는 말과 함께 늘씬하게 두들겨맞았다. 밤늦게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피와 분노의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돌을 발뿌리가 깨지도록 힘껏 내쳤다. 나는 홀로 그 철교를 건너면서 중학생의 자존심을 분노와 눈물로 삼켰다.

9

나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교회 계통에서 하는 여러 운동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그러니 모범생 되기는 틀린 셈이다. 일학년 후반부터 주일학교 반사로 발탁이 되고 2학년 때는 어떤 교회가 경영하는 불우한 여인들을 위한 야간학교 선생 노릇을 했다.

2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일부는 일본 가정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위시해 철저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 국민학교 갈 돈도 없었던 아주머니들, 나아가서는 나이들어 문맹을 면하려는 아주머니들이었다. 밤마다 4시간씩 4년제로 편성된 학교였는데 선생은 나이차는 있었으나 모두 중학생들이었다. 그러니 밤이면 선생, 낮이면 어린 학생, 이런 생활이 제대로 조화가 될 까닭이 없다. 학교에는 매일 ‘안병무선생 좌하’라는 편지가 10여통씩 날아든다. 야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모의 정이 담긴 편지들이다.

2학년 2학기까지는 상위층에 속하던 내 성적이 급강하하여 겨우 꼴찌를 면했을 정도가 되자 담임 선생님이 불려 호되게 다구치면서 “야 이놈아, ‘안병무선생 좌하’라는 게 도대체 무어야. 당장 그만 두지 못해.” 하면서 핀잔과 모욕을 주었고 이를 듣고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조소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200여명 여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꼬마 선생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던지…… “선생님, 그것만은 결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그대신 밤에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사실상 나는 애당초 밤에 이불을 펴지 않았다.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죽어라고 공부한 셈이다. 그래서 그 학기에는 겨우 처음 성적을 되찾았으나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준 이하의 성적으로 졸업때까지 끌고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나는 거룩한 희생 같이 생각했으니 회상하는 지금 씩씩한 미소를 짓게 된다.

10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그 학교 종교부에서 가장 큰 동리에 개설한 교회형태를 띤 계몽현장에 책임자로 나가야만 했다.

이때부터 나는 학교에 적은 두었지만 중학생은 아닌 셈이다.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장, 낮 예배시간에는 꼬마목사——. 저녁도 역시.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동리 문맹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리의 동장과 결탁해서 동리문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령 동네에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불량배가 난동을 부린다든지, 악덕지주가 횡포를 부린다든지 하는 문제 등등 지금 생각하면 열일곱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의논하고 마치 그들의 자문역이나 된 듯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시사철 틈나는 대로 그 주민들에게 내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가련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독립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하기도 했다.

어느때가는 민족을 생각하는 웅변대회를 주최해서 열기를 뽐었는데 그것이 경찰에 알려져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배후를 추궁받았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배후 조종했다는 전제 아래 나를 괴롭혔으나 나는 그에 굴복하지 않았다.

11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야욕은 끝이 없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정부 만주국을 세운 다음, 1937년에는 노구교사건을 일으켜서 중국대륙에의 침략구실을 만들어 중일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은 그들의 계획대로만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중국민족의 저항도 완강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항일의식 또한 만만찮은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후방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숨막힐 듯한 사상탄압을 자행했다. 우리 민족의 항일의식을 뿌리뽑고 일본 천황의 충성스런 신민(臣民)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본말을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1~2학년 때까지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았고 심지어는 우리 역사까지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이제 학교 입구에 일본천황과 만주왕의 사진을 걸고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라는 것을 실시하여 일본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였다. 또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시키고 삼엄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제복도 군인복 같은 유니폼으로 바꾸었다. 전쟁 막바지에는 교회가 항일의식의 온상이 된다고 하여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다. 일제는 이처럼 숨막힐 듯한 사상탄압을 가하는 한편 관동군을 동원하여 만주

의 이곳저곳에서 항일투쟁을 그치지 않는 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민족해방의 여명이 보이지 않는 칙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의 시기에 내 마지막 남은 10대의 후반을 절망과 울분 속에 묻어야 했다. 그 나이에는 밤이 깊어가면 머지않아 새벽이 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 민족의 처지에 비추어 깨닫지도 못했으려니와 연변에 서는 그래도 우리 동포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용정도 이제는 민족적 열기가 식은 체념의 분위기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마다 짧은 만주의 봄은 오고 산에 들에 푸르른 신록이 우거지면 두만강 저 너머에 아득히 그려지는 말로만 듣던 고국땅이 아련히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어쩌면 내일이라도 마음놓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손에 잡힐 것 같은 내 미래의 꿈처럼.

